아버지 역할수행의 결정요인 연구

Determinants of Father's Role Performance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 사 강 란 혜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Catholic Univ.
Lectruer : Kang, Ran Hye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variables contributing to the father's role performance. The study has been designed to measure the quantitative(i.e. amount of involvement) and the qualitative(i.e. depth of affection/care) values in their modes of child-rearing practices by taking a closer look at the father's views on their careers and on offspring.

Subjects were 516 fathers of school-age children. Analyzing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child-rearing practices by the fathers, the sense of fulfillment/value in life is the decisive factor behind the affection(i.e. qualitative) in the child-rearing practic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father's perceptions on their careers and on their children constitute the critical factors behin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of child-rearing practices, albeit holding such factors as the parents' working hour or as mothers with outside jobs under control.

Ⅰ. 서 론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아동,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자신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MacDonaled & Parke, 1984; Radin, 1988; 尾形, 1995), 아버지 자신의 심리적 성장에도 관련하고 있다(新欲 · 村松, 1994; 山口, 1993). 특히 어머니의 자녀양육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牧野, 1992), 아동의 문제해결이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Dunn, 1933; Hart, et al., 1990; Pruett, 1992). 이렇듯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간접적으로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는 아동의 보다 좋은 발달에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로 부터 자녀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수행의 중요성과 함께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예측하는 선행변인(antecedent)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 왔다(Nugent, 1991; Russel, 1982; Parke, 1996). 그 결과 아버지의 배경변인, 가정변인 및 아동의 특성(Belsky, 1984; Voling & Belsky, 1991)등이 밝혀지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아버지 자신의 심리적 특성변인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본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Grosman et al., 1988; Palkovitz, 1984).

아버지 역할수행의 질(質)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결혼만족도나 부부관계의 질을 들고 있는 연구자는 많다(Belsky, 1984; Levy-shiff & Israelashvili, 1988, Volling & Belsky, 1991).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은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신뢰하고 있을 때, 아버지 역할에 긍정적으로 되며(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부부관계를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Nugent, 1991). 이것은 바꿔 말하면 불행한 결혼을 한 아버지는 부인으로 부터 뿐만 아니라 자녀와도 거리를 두기 때문에 호혜적으로 정서가 풍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적고 그 결과 자녀는 아버지를 중요한 정서의 정보원으로서 학습할 기회를 잃는다(Belsky & Isabella, 1985; Diekstein & Parke, 1988; Easterbrooks & Emde, 1990). 그리고 부부간의 결혼만족이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Parke(1981)는 서로 논쟁하고 비판적인 부부들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대한다고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Coyish(1983)는 부부생활에 만족하는 아버지일수록 유아와의 직접적인 만남에 일종의 안전감을 느끼기 때문에 유아의 보호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Feldman과 그의 동료들(1983)은 부부간의 결혼관계의 질이 아버지 역할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이외에 심리적 특성변인으로 아버지의 인성(personality)을 들고 있는 연구(Grossman, 1988; Levy-Shiff, 1988, 1994; 加藤등, 1996) 도 많다. Levy-Shiff와 그의 동료들(1988)은 아버지의 심리특성이 양육참여 행동에 가장 중요한 설명변인임을 발견하였다. 아버지의 인성이 친화적(affiliative)일수록 아동과 놀이 행동이 많고, 자율적(autonomous)일수록 아동의 일상적인 돌봄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Wolfe(1985)는 자율성이 높은 아버지는 아동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아동과 자주 부딪치고 아동에게 무책임한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자율성이 높은 아버지는 자녀에 의해 방해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녀양육을 어머니의 역할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친화성과 자율성에 대해 Grossman, Pollack과 Golding(1988)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다. 친화성은 「자기자신이 다른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독립된 아이덴티티를 가지면서 공감적이고 반응적인 관계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자율성이란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해서 분리하는 생각이고 혼자 활동하거나 혼자 즐기는 인성」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는 결혼생활이나 자녀 양육행동에 있어서 좋은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친화성도 자율성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Cox와 그의 동료들(1989)은 영아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결혼만족도와 심리적 적응을 살펴본 결과, 심리적 적응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 반면, 결혼만족도는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육행동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경우엔 결혼만족도 보다 인성적인 특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결혼만족도가 그리고 아버지는 인성요인이 양육행동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인성등의 심리적 특성변인이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국내의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인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힌 연구는 적다. 따라서 심리적 특성변인인 결혼만족도와 인성은 상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서로 다른 정도의 영향

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결혼만족도와 인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과 가정생활은 많은 성인에 있어서 생활의 커다란 2가지 영역이다(Frone, Russell, & Cooper, 1992). 하루의 대부분을 밖에서 지내는 아버지에 있어서 직업역할의 의미는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아버지라는 새로운 역할이 추가되면, 지금까지의 일, 그리고 남편이라는 역할에 아버지라는 역할을 통합시켜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과 직업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 취업여성만의 다중역할 문제가 아니고(kinnunen et al, 1996; 小野寺, 1996), 남성의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였던 시대에 비해서, 현대에는 DINKS라는 말로 대표되는 것처럼 결혼해서 구태여 자녀를 갖지 않고 부부가 함께 일을 계속해 가고, 게다가 결혼을 하지 않는쪽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일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다양해서, 자신에 있어서 어떠한 측면에 중요성을 두는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가의 폭도 넓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자신이, 직업일과 자녀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두는가는 일과 자녀양육의 균형에 관련된다. 직업과 가정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에 관한 갈등, 심리적 건강에 촛점을 둔 연구는 많다(Barnett, Marshall, & Pleck, 1992; Baruch & Barnett, 1986). 그러나 아버지 자신에 있어서 일과 자녀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말하자면 직업관과 자녀관이란 관점에서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984년 「자녀가치관」에 관한 세계은행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녀 가치관을 2가지로 나누어서 보고하고 있다. 자녀를 「경제적 · 실용적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 (17.5%), 일본(6.6%), 미국(4.4%)의 순이고 「정신적 가치」로 생각하는 나라는 일본(76%), 미국(69%), 한국(62%)의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공업화가 되어가고 노동력의 여성화가 진전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자녀의 〈실용적 가치〉는 감소하고 대신에 〈정신적 가치〉로 나타나고 있어(柏木, 1998), 자녀를 보는 시각이 사회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총무청(1987)이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의미부여에 관해서 국제비교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본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독일의 아버지는 「부인에게만 맡기는 것은 좋지 않아서」, 미국의 아버지는 「일보다 자녀양육이 중요하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많았다. 일과 가족역할의 우선성을 한국의 중년기 아버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경혜(1995)의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의 아버지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고(31.8%), 그 다음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 역할(24.8%)이었다. 직장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응답자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Grossman(1988)에 의하면 일에 우선도가 높은 아버지는 양육행동의 양은 적지만,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게다가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정적인 관계를 많이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福丸(1997)의 연구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직업관과 자녀관이 부모의 양육참여에 어떻게 관련하는가를 검토한 결과, 일중심적인 직업관을 갖고 있으며 자녀에 무관심한 자녀관을 가진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게 참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아버지가 일보다 자녀양육에 우선을 두는 것은 그 배경에는 일보다 자녀에게 더 중요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역할로서 종래의 연구에서는 과중한 근무량, 직업의 종류, 노동시간 등의 물리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직업역할과 자녀양육역할중 어떤 역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지하는지의 역할 우선성 측면을 다룬 연구(이숙현, 1995; 한경혜, 1995)들은 많이 있지만, 직업관과 자녀관이라는 관점에서 아버지 역할수행을 다룬 것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직업관과 자녀관에는 노동시간, 직업의 종류, 어머니의 취업유무등, 현재의 아버지의 사회경제적 요인과도 관련되고 있는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아버지역할 수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로서 아버지의 배경적 요인(장미나, 1994: 윤종희, 이인숙, 1993), 심리적 특성변인(柏木, 1996; 이성희, 한은주; 1998), 아버지의 직업

관과 자녀관을 동시에 본(柏木・若松, 1994; 福丸, 1997)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버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역할수행의 지표로서 어떠한 변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大野・柏木, 1996). 역할수행중에는 가사를 포함한 연구(木田, 1980)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양육행동을 어느정도, 어떻게 행하는가의 양과 질을 측정(新谷・村松・牧野, 1992; 강란혜, 1997)하는 방법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를 포함시키지 않은 자녀에의 직접적 양육행동의 양과 질의 정도를 역할수행의 지표로 해서,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아버지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서 알아보는데 그 기본적 목적이 있다. 또한 역할수행에 대한 직업관과 자녀관의 각각의 상대적인 영향력 외에 직업관・자녀관의 유형에 따라 아버지 역할수행의 정도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도 아울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의 역할수행은 인구학적 변인(직업, 학력, 노동시간, 부인의 직업유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의 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특성 변인이 아버지 역할수행을 얼마나 설명해 주는가?

연구문제 3. 직업관・자녀관의 유형에 따라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동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령의 아동을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기(Jacob, 1974; Steinberg, 1981)와, 주로 유아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Clark-stewart, 1978; Parke, 1981). Maccoby(1984)가 지적했듯이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본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유아기로 한정된 아버지 역할의 연구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여기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둔 아버지를 대상에서 배제시킨 이유는 본 연구에서 이용된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예: '자녀가 고민에 대해 상담할때 신중히 들어준다') 주로 연령이 높은 자녀와의 활동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아동의 연령범위를 제한했다. 아버지 121명에게 예비조사를 하여 척도를 수정・보완(직업관의 도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번안상의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번안에 따른 표현상의 부적절한 문항의 일부 수정과 함께, 요인분석 결과 '자신의 직장이 좋다', '자신의 일에 만족한다'의 문항은 일에 대한 가치관이라기 보다 직업만족도로 볼 수 있어 '일을 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하다'로 보완했다) 한 후, 본 조사는 초등학교의 아동을 통해서 아버지용 질문지 630부를 배부하였다. 이중 불성실하게 대답한 질문지, 아버지 부재(이혼등의 물리적 부재, 출장등), 무직(직업관을 보기때문에)인 경우를 제외하여 최종분석자료는 516명의 아버지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은 40세에서 50세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약 72%로, 어머니의 연령은 30세에서 40세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약 53%로 가장 많았고,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8.6%, 대학졸업은 52.5%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업은 24.2%이었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졸은 20.5%, 대졸자는 49%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분포는 전문직 14.3%, 자영업 36.9%, 회사원 33%, 그리고 공무원이 20.3%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어머니는 76%가 전업주부였다.

2. 조사도구

1) 아버지의 역할수행

자녀에 대한 애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를 아버지 역할수행으로 규정하였다. 애정적 양육행동은

강란혜 · 사가라준꼬(1998)의 양육행동을 수정 · 보완하여 12문항을 사용했다. 예를들어, "자녀가 고민에 대해 상담 할때는 신중히 들어준다."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애정을 표현한다" 등의 애정, 관심을 표현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에 의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양육행동의 참여도는 강란혜(1997)의 양육참여도 7문항을 사용했다. 참여정도는 빈도만을 측정한 연구(新谷, 1992; 이세용, 1997), 빈도와 접촉시간등 복수의 변수를 표준화해서 양육참여도로 한 연구도 있다(數井, 1996).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등은 빈도(「전혀없다」「1개월에 1-2회」「1주일에 1-2회」「일주일에 3-4회」「거의 매회」)로 표시했고, 여기에 평일, 휴일에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의 양도 포함시켜 표준화해서 합산한 득점을 양육참여도로 했다. 득점이 높으면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애정적 양육행동은 .82, 양육참가도는 .72로 나타났다.

2) 아버지의 직업관

일에 대한 가치관, 즉 「일이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묻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MOW(三隅 · 失守, 1991)의 항목을 수정, 보완해서 총29문항을 사용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점) 부터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에 의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예: 일은 인생에 충실감을 갖다 준다. 일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한다)를 갖는 직업관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5~.86의 범위로 나타났다.

3) 아버지의 자녀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 즉 「자녀란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존재인가」를 묻는 항목이다. 이것은 柏木 · 若松(1994)와 大野들(1996)의 척도, 예비조사시 아버지의 자유회답을 참고로 29문항을 작성했다.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점) 부터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4점)까지의 4점 척도에 의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자녀에 대해 긍정적(예: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풍부하게 한다. 자식을 보고 있으면 기운이 난다)인 가치관, 즉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8~.77의 범위로 나타났다.

4) 아버지의 인성

原田등(1984), 牧野(1994)의 연구를 참고로 6문항을 사용했다. Grossmann (1988)등의 정의에 따라서 다음의 항목을 설정했다. 친화성이란 아동을 귀엽다고 느끼는 것, 사람에게 자비스러운 감정을 갖는 것, 반면 자율성이란 결단력이나 자기주장, 정신적 및 경제적 독립의식 이라는 단어로 설명되는 개념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친화성(Affiliation)에 관한 3항목(아동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곧 친구가 될 수 있다, 혼자 보다 여러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과, 자율성(Autonomy)에 관한 3항목(결단력이 있다, 인생에 있어 곤란한 일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는 친화성은 .82 이었으며, 자율성은 .79 이었다.

5) 결혼만족도

아버지가 인지하는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강란혜 · 永久(1997)의 연구를 기초로 5문항 (부인과 결혼해서 정말로 좋다고 생각한다, 부인을 인간적으로 존경한다고 생각한다 등)을 채택하여 사용했다. 수 많은 결혼만족도 척도중 본 척도를 선택한 것은 선행연구에서 (강란혜 · 永久, 1997) 한국과 일본의 30대에서 40대까지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각의 나라별 신뢰도가 .85이상으로 높았고 한국과 일본의 데이타를 합친 결과의 신뢰도도 .89로 충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항목은 항상 그렇다(4점) 부터 결코 그렇지 않다(1점)까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에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α=.76 이었다.

3. 자료분석

이상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 α,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수량화 I 류(quantification theory type I), 수량화 III류,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한 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버지의 인구학적변인과 역할수행과의 관계

피험자의 인구학적인 속성을 범주화된 7항목 21 범주를 독립변수로 하고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참여도를 종속변수로 해서 수량화 I 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량화 I 류(quantification theory type I)는 종속변수가 있는 경우로 중회귀분석과 비슷한 방법이다. 중회귀분석과 다른점은 독립변수가 중회귀분석은 수량 데이타인 것에 대해서 수량화 I 는 독립변수가 양적, 질적(qualitative)인 경우 독립변수의 범주들을 수량화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목적은 독립변수의 상대적인 비교에 있다. 또한 비교의 기준으로서 수량화값의 범위(range)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管民郎, 1993; 허명희, 1998). 범주화의 수량값의 방향은 프러스(+)면 즉 그래프가 오른쪽 방향으로 된 범주명은 애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마이너스(-)면 그 반대로 적게 하는 방향으로 기여한다. 단, 그것은 종속변수와의 관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 1>을 보면 아버지 연령이 30대, 고졸, 회사원, 자영업, 노동시간이 많은 경우, 여아인 경우, 아동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의 아버지는 애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애정적 양육행동 -수량화 I 분석-

(N=516)

설명변수	범주명	빈도	수량값	범 주 점 수	범위(range)
아버지 연령	30대	109	-0.062		0.182 ②
	40대	372	0.032		
	50대	31	0.120		
아버지 학력	고졸	96	-0.075		0.138 ③
	대졸	271	0.063		
	대학원졸	125	0.044		
아버지 직업	회사원	172	-0.078		0.246 ①
	공무원	105	0.168		
	자영업	140	-0.036		
	전문직	74	0.046		
	기 타	24	0.098		
노동시간	8시간이하	30	0.021		0.082 ⑤
	8시~10시	135	0.032		
	10시~12시	235	-0.031		
	13시간 이상	116	-0.050		
아동의 성별	남아	238	0.035		0.039 ⑦
	여아	274	-0.004		
아동의 연령	7세 ~9세	172	-0.043		0.081 ⑥
	10세~13세	344	0.037		
모의 취업유무	무	391	0.042		0.111 ④
	유	122	-0.069		
				-0.1 -0.05 0 0.05 0.1 0.15	

또한 종속변수인 아버지 애정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의 기여도 순으로 보면 가장 큰 관련을 갖는 변량은 수량화 범위로 판단한는데 아버지의 직업이다. 아버지의 연령, 학력, 어머니의 직업유무, 노동시간, 아동의 연령, 아동의 성별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참여도를 설명하는 변인은 노동시간, 직업, 학력, 연령, 아동의 성별, 아동의 연령, 어머니의 취업유무 순이었다. 그중 유의한 수량화 값의 범위로 보면 아버지의 직업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노동시간, 아버지의 직업은 양육참여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다. 즉 공무원 및 교원(수량화값 0.168)인 아버지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회사원(수량화값 -0.078)인 아버지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 학력의 영향력은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직업 변인 자체가 학력과 강하게 상관하는 변인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버지의 참여도에는 전문직(수량화값 0.117)이고 노동시간(수량화값 0.294)이 짧은 아버지일수록 실제의 양육참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장미나(1994), 土谷(199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양육참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역시 생활시간과 관련한다고 볼 수 있다.

2.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우선, 아버지의 직업관·자녀관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516명을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관 3요인(충실·자아실현, 제약·부담, 경제지향성) 21항목을 추출 하였다. 누적 기여율은 76.4%였다.

제1요인은 '일은 인생에 충실감을 가져온다'. '일은 자신에 있어서 삶의 보람이다.' '일은 자아실현의 장(場)이다.' '일을 통해 자신이 성장한다.' '일

<표 2>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참여도 -수량화 I 분석 - (N=516)

(N=516)

설명변수	범주명	빈도	수량값	범 주 점 수	범위(range)
아버지 연령	30대	109	-0.040		0.137 ④
	40대	372	0.007		
	50대	31	0.097		
아버지 학력	고졸	96	-0.148		0.169 ③
	대졸	271	-0.045		
	대학원졸	125	0.021		
아버지 직업	회사원	172	-0.074		0.216 ②
	공무원	105	-0.109		
	자영업	140	-0.010		
	전문직	74	0.117		
	기 타	24	0.055		
노동시간	8시간이하	30	0.297		0.398 ①
	8시~10시	135	0.127		
	10시~12시	235	-0.076		
	13시간 이상	116	-0.101		
아동의 성별	남아	238	0.008		0.013 ⑤
	여아	274	-0.005		
아동의 연령	7세 ~9세	172	0.005		0.009 ⑦
	10세~13세	344	-0.004		
모의 취업유무	무	391	-0.009		0.060 ⑥
	유	122	0.051		
				-0.2 -0.1 0 0.1 0.2 0.3	

을 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하다.' 등의 항목으로,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충실감을 얻고 자기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신에게 일이란 것을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하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충실 · 자아실현」의 요인으로 했다. 제2요인은 '일은 자신의 자유시간을 빼앗는다.' '일은 가족과의 시간을 빼앗는다.'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등의 항목으로, 일 때문에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이나 가족과의 관계가 제한되는 등 일로 인한 본인의 제한, 부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약 · 부담」요인으로, 제3요인은 '일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면 일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다.' 등 일을 경제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 하므로 「경제지향성」의 직업관으로 명명했다.

자녀관은 3요인(충실 · 삶의보람, 경제적부담 · 심리적 제약, 가(家)의 계승) 24항목이 추출되었다. 누적 기여율은 64.7%였다.

제1요인은 '자식은 자신의 인생에 충실감을 준다.' '자식은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자식을 보고 있으면 기운이 솟는다.' '자식의 덕택으로 자신도 성장한다.' 등 자신에게 자식이란 존재를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하고 있는 항목으로 구성되고 있으므로 「충실 · 삶의보람」의 요인으로 했다. 제2요인은 '자식이 있으면 경제적 부담이 크다.' '자식은 돈이 드는 존재이다.' ' 자식으로 부터 해방되고 싶다.' '자식을 가지면 정신적으로 쉴 수 없다.' 등 자식으로 부터의 제약이나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제적부담 · 심리적제약」 요인으로, 제3요인은 '자식은 가계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존재이다.' '자식은 노후의 자신을 돌보아 줄 존재이다.' '자식은 자기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家)의 계승」의 요인으로 명명했다.

이와같은 직업관 · 자녀관의 하위변인, 아버지의 인성, 결혼만족도 그리고 인구학적변인중 어떤 변인이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참여도를 잘 예언해 주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력이 높고 유의도가 높은 변수 순으로 투입되다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변수들만 남게 되면 분석이 중단된다. 분석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 3〉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대한 관련변인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Partial R^2
애정적 양육행동	「충실 · 삶의 보람」의 자녀관	6.36	.37***	.21
	「친화성」의 인성	2.78	.16***	.04
	결혼만족도	0.83	.14***	.03
	「家의 계승」의 자녀관	1.72	.09**	.02
	R^2		.30	
	F		55.25***	
	df		507	
양육 참여도	「충실 · 삶의 보람」의 자녀관	7.50	.38***	.11
	노동시간	4.19	-.11***	.04
	「제약 · 부담」의 직업관	4.57	-.09*	.02
	「충실 · 자아실현」의 직업관	4.10	-.21***	.02
	결혼만족도	1.30	.12*	.01
	R^2		.20	
	F		16.10***	
	df		508	

* $p<.05$ ** $p<.01$ *** $p<.001$

「충실·삶의 보람」의 자녀관, 「가(家)의 계승」의 자녀관, 아버지의 친화성, 결혼만족도 변수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30%를 설명($p<.001$)하고 있는데, 그중 특히「충실·삶의 보람」의 자녀관($\beta=.35$, $p<.001$)이 총변량의 21%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자식을 자신의 삶의 보람으로 느낌과 동시에, 자식을 가계의 계승의 존재라는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일수록,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고 아버지의 인성이 친화성이 강한 경우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충실·삶의 보람」의 자녀관, 「경제적부담·심리적제약」의 자녀관, 「제약·부담」의 직업관, 「충실·자아실현」직업관, 노동시간, 결혼만족도의 변수에 의해 20%가 설명($p<.001$)되고 있으며, 그중 「충실·삶의 보람」의 자녀관($\beta=.38$, $p<.001$)이 총변량의 11%를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자식을 자신의 삶의 보람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제약으로 느끼지 않는 아버지 일수록, 또한 직업관에 관해서는 일에의한 자아실현이 낮고 일에 부담이나 제약을 덜 느끼는 아버지 일수록, 게다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양육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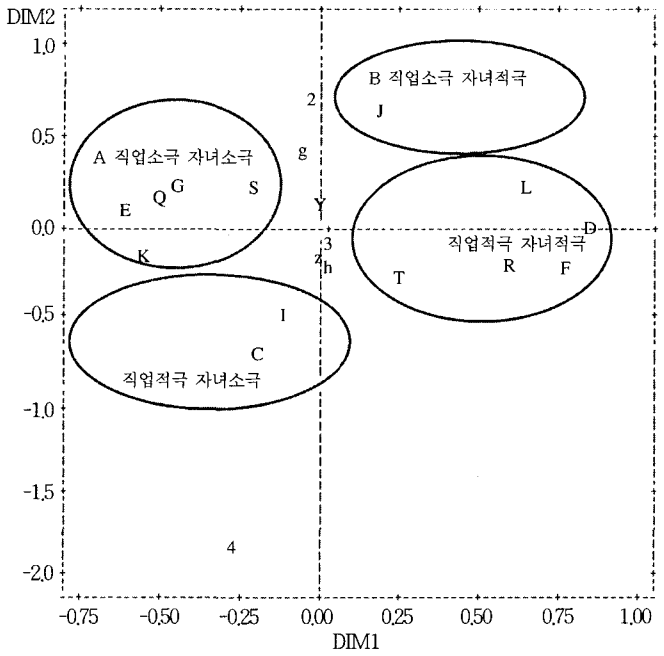
3. 직업관·자녀관의 유형에 따른 아버지의 심리적요인과 역할수행과의 관계

직업관과 자녀관의 득점에 의해서 아버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유형에 따라서 애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 및 아버지의 인성, 결혼만족도, 노동시간 등의 변수를 사용해서 수량화 Ⅲ류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종속변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수량화기법이다. 변수 상호간의 복잡한 현상을 2차원 분할표에서 행 범주와 열 범주를 수량화하고 변수간의 유사성(또는 비유사성)인 변수 공간상에 위치 시키는 것이다. 서로에게 유사성이 있는 범주는 서로에게 가까운 곳에, 유사성이 없는 것은 먼 곳에 존재한다. 대상자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어떠한 유형에 포함되는가를 밝히려고 하는데 유효한 방법이다(林知, 1993).

직업관과 자녀관의 각 변수를 평균을 기준으로 높은군, 낮은군의 범주로 분류한 후 수량화 Ⅲ류의 방법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축을 교차시키는 것에 따라서 대상자를 4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일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고 어느쪽에 대해서도 제약감이 높은 「직업소극·자녀소극」형, 일과 자녀에 대해 충실감이 높은 「직업적극·자녀적극」형, 일에 대해서 보다 자녀에 대해 관심이 높은「직업소극·자녀적극」형, 자녀보다 일의 지향이 강한「직업적극·자녀소극」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유형화에 따라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 양육참여도, 인성, 결혼만족도를 1축과 2축의 피험자 점수 평균점을 플롯한것이 〈그림 1〉 이다. 이것을 보면 「직업소극·자녀소극」형(A)에는 애정적 양육행동이 낮은 집단,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 친화성과 자율성이 낮은 집단이 위치하고 있다. 「직업소극·자녀적극」형(B)에는 아버지 연령이 30대, 양육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위치하는 것에 대해, 「직업적극·자녀소극」형(C)에는 양육참여도가 낮은 집단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직업적극·자녀적극」형(D)에는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 친화성과 자율성이 높은 집단이 위치하고 있어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직업관과 자녀관 모두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양육참여도가 높은 집단은 직장 일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자녀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집단과 관련하고 있다. 어머니의 직업유무는 1축 상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유형과도 관련이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아버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 직업역할과 가족역할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Ishii-Kuntz, 1996). 성인기는 복수(複數)의 역할을 짊어진 시기이고, 아버지로서의 측면 외에 남편인 것과 일을 가진 직업인, 지역사회의 일원(一員)등 여러가지



<그림 1> 직업관 · 자녀관에 따라 분류한 4가지 유형의 특성

A. 「직업소극 · 자녀소극」형
B. 「직업소극 · 자녀적극」형
C. 「직업적극 · 자녀소극」형
D. 「직업적극 · 자녀적극」형

E. 애정적 양육행동 낮은 집단
F. 애정적 양육행동 높은 집단
I. 양육참여도 낮은 집단
J. 양육참여도 높은 집단
K. 결혼만족도 낮은 집단
L. 결혼만족도 높은 집단
Q. 친화성(인성) 낮은 집단
R. 친화성(인성) 높은 집단
S. 자율성(인성) 낮은 집단
T. 자율성(인성) 높은 집단
Y. 전업주부
Z. 취업주부
g. 아동연령 7세-9세
h. 10세-13세
2. 아버지 연령 30대
3. 40대 4. 50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측면에서의 의미부여는 그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과 관계한다. 본 연구는 아버지 역할수행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다차원적 접근(Daly, 1993; Marsiglio, 1993; Parke, 1995)을 통해서 조사하므로서 효과적인 아버지 역할수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아버지 역할수행의 하위변인인 애정적 양육행동과 양육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아버지의 직업이었다. 직업중에서도 공무원, 전문직을 가진 아버지가 역할수행이 높은 것으로 보아, 선행연구의 결과(박미석, 1996; Turnipseed, 1994; 柏木 · 若松, 1994)와 일치하는 것으로 Lynn(1974)은 노무직에 종사하는 하류층의 아버지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고, 지배적인데 반해, 전문직 아버지들은 가족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더 많이 참여함을 보고 했다. 이것은 직업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노

동시간은 양육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Belsky & Volling(1991), 이인길(1992) 등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애정적 양육행동에는 노동시간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등의 정서적 표현은 노동시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시간의 양 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에게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아동과 아버지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아동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심도 증가시킨다는 Lamb(1997) & Parke(1995)의 의견을 지지해주고 있다.

둘째,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아버지의 배경변인은 아버지 역할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의 자녀관이 가장 큰 설명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에는「충실・삶의보람」의 자녀관,「가(家)의 계승」의 자녀관, 아버지의 친화적(affiliative)인 인성, 결혼만족도 변인이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는 아버지에게 인생의 충실감과 사는 보람을 주는 존재임과 동시에 가(家)의 계승을 위한 존재라는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 일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연구자의 기대와 다른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높고 생활수준도 중상류층이기 때문에「가(家)의 계승」의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는「가(家)의 계승」을 위한 존재라는 혈연중심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남아있고, 이는 실제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개인보다 가(家)를 중요시하는 가족주의는 가족구성원의 의식 및 행위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서 한국 남성의 가치관은 천천히 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국제비교조사(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자녀란 '가계의 계승', '노후대책을 위한 존재' 라고 보는 의식이 한국의 남성이 50%, 26%인 반면, 가까운 일본은 12%, 1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큰 만큼,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자녀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아선호사상, 노후를 의지하려는 경향이 완전 소멸된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친화적인 인성을 가진 아버지, 결혼만족도가 높은 아버지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관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애정적 양육행동 및 양육참여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결혼만족도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는 결혼만족도가 높을 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인 양육태도 및 행동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많은 선행연구(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Goldberg & Easterbrooks, 1984; 김희주, 1997; 數井, 1996; 官原, 1998)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은 성공적인 결혼생활이 그 조건이라고 한 Bigner(1979)의 견해, 서로 논쟁하고 비판적인 부부들은 자녀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Parke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이것은 아버지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의해서 양육행동이 달라지므로 부부관계의 질은 부자관계에도 중요한 설명력을 가진 변수이다. 양육참여도에는 결혼만족도, 자녀관 이외에, 종래의 연구(木田, 1980; 한경혜, 1995)와 마찬가지로 노동시간과 관련하고 있지만, 동시에「충실・자아실현」의 직업관,「제약・부담」의 직업관도 유의한 관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는 아버지의 직업관과 노동시간을 동시에 보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관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포함해서 양육참여도와의 관련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째, 직업관・자녀관 유형화에 따라서 아버지의 역할수행, 심리적 특성변인과의 관계를 검토했다. 먼저 역할수행과의 관계를 보면, 애정적 양육행동이 낮은 집단은 일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고 어느쪽에 대해서도 제약감이 높은「직업소극・자녀소극」형에 많고, 반대로「직업적극・자녀적극」형에는 애정적 양육행동 득점이 높은 집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자녀 양쪽 모두에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아버지가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였다. 즉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아버지는 일에 대한 자아실현도 높고, 자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녀관을 갖고 있

으며, 양쪽 모두에 충실감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아동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심리적, 정신적인 것이어서 아버지의 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이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유형에는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고,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인성을 가진 아버지들이 속해 있다. 아버지의 결혼만족도는 단계적 중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직장역할에도 가정역할에도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업적극 · 자녀적극」형에는 아버지의 친화적인 인성과 자율적인 인성이 모두 관계하고 있어 Grossman(1988)이 제시한 아버지의 역할수행에는 친화성과 자율성이 모두 중요하다는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친화적인 성격이 좀더 관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자율적인 인성보다는 친화적인 인성이 「직업적극 · 자녀적극」형인 D에 좀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적극 · 자녀소극」형 보다 「직업소극 · 자녀적극」형의 아버지가 양육참여도가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일지향보다 자녀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직업적극 · 자녀소극」형의 아버지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직업소극 · 자녀적극」형의 아버지에 비해 양육참여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福丸(1997)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수량화 Ⅲ류의 분석은 커다란 경향을 표시하는 것이어서, 각 유형을 가진 아버지를 대상으로한 상세한 검토는 앞으로의 과제이다.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의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자연구를 보다 충실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의 연령단계의 아동과 아버지의 관계에 촛점을 두고, 게다가 가족 시스템 혹은 생애발달의 시점에서 아버지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은 아동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생애에 걸쳐서 발달하기 때문이다(柏木, 1993 : Parke, 1988, 1990, 1995).

둘째, 가정역할과 직업역할간의 갈등이 강한 아버지들에게 촛점을 두어 그러한 갈등이 아버지 자신의 심리적 변화, 성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세째, 어머니의 심리적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성적인 어머니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고 또한 어머니가 양육의 유능한 파트너 로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보다 촉진(Cowan & Cowan, 1992)하는 경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로부터 종래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역할 수행에는 어머니의 취업유무, 아버지의 노동시간이 관련하고 있지만, 이 변인을 통제해도 직업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가치관이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관계하고 있는것이 시사되었다. 이것은 직업관과 자녀관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노동시간이 아닌 자녀관이었다.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아동과 접촉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긴 노동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양육행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Lamb(1995, 1997)이 말했듯이 시간의 양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자녀와 어떻게 보내는가의 질적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직업과 가정과의 상호관련성을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강란혜, 사가라준꼬(1998). 한국과 일본 아버지의 성역할태도와 양육 참여행동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37-150.
2) 강란혜(1997). 父親の養育行動と子どもの性役割特性との日韓比較研究. 發達研究, 12, 79-87.
3) 강란혜, 나가시히사꼬(1997). 家族の個人化 (2) - 日韓比較研究 - 日本發達心理學會 第7會大會發

表論文.
4) 김희주(1997).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12(2), 19-33.
6) 이성희, 한은주(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37-150.
7) 이숙현(1995). 장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가족학연구회.
8) 장미나(1994). 남성의 직업역할과 결혼만족도가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한경혜(1995). 중년기 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95 가정복지세미나-아버지의 일과 가족생활. 한국가족학연구회.
10)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ment, 55, 83-96.
11) Belsky, J. & Pensky, E.(1990). Developmental history, personality, and family relationships: toward an emergent family system. In R.A. 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Oxford, 193-217.
12) Cowan, C.P., & Cowan, P. (1992). When partners become parents. NY : Basic Books.
13) Coyish, W.S. (1983). Factors influencing men:s roles in careing for their hildren and the effects of father involv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14) Cox.M.J., Owen, M. T., Lewis. J.M., & Henderson, V. K. (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4.
15) Daly, K. (1993). Reshaping fatherhood finding the models. Journal of Family Issues, 14, 510-530.
16) Dickstein. S., & Parke, R. D. (1988). Social referencing in infancy: A glance at fathers & marriage. Child Development, 59, 506-511.
17) Dunn, J. (1993). Young Children's Close Relationships. Newbury, CA: Sage
18) Eastebrooks, M.A. & Dmde, R. N. (1990). Marital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A. Hinde & J. Steven-Hinde (Eds). Relationshs., Nash, S.ips Within Families. Oxford, England: Oxford, 83-103.
19) Feldman.S.& Aschenbrenner, B.G.(1983). Antecedents of fathering. Child Development, 54, 1628-1636.
20) Goldberg, W. A. (1984). Tollder development in the family: Impact of father involvement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55, 740-752.
21)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 (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 Psychology, 24(1), 82-91.
22) Hart. C. H., Ladd, Gow., & Burleson, B. R. (1990). Children's expections of the outcomes of social strategies: Relations with sociometric status and maternal disciplinary styles. Child Development, 61, 127-137.
23) Ishii-Kuntz, M. (1996). A perspective or change in men's work and fatherhood in Japan. Asian Cultural Studies. 22, 1-107.
24) Kinnunen, V., Ferris, J. and Vermulst, A. (1996). Work experience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employed father:s with children of school age. Family Relations 45, 449-455.
25) Lamb, M. E. (1997). The Role of the faht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26) Levy-shiff. R. & Israelsshvili. R. (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34-440.
27) MacDonald, K. & Parke, R.D.(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gap: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28) Marsiglio, I.W. (1991). Parental engagement

activities with minor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73-86.
29) Nugent, j.K. (1991). Cultural and psycological influences on the father's role in infact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475-485.
30) Parke, R. D. (1995). The father: Handbook of parenting vol. 3. Lawrence Erlbaum Associates, New Jersey.
31) Radin, N. (1988). Primary caregiving fathers of long duration. In P. Bronstein & C.P. Crown(Eds.), Fatherhood Today, New York: Wiley. 127-143.
32) Turnipseed, D. L. (1994).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work enviorment variales and moderators on the burnout syndrom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9), 782-800.
33) Volling, B. L. (1991).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3: 461-474.
34) 管民郎(1993). 多變量解析の實踐(下). 現代數學社
35) 管原ますみ(1998). 父親の養育行動と夫婦關係, そして兒童の精神的健康との關連 —生後11年追跡調査から—. 國立精神神經センター. 精神科診斷學. 8, 155-166.
36) 加藤邦子, 中野由美子, 土谷美ち子, 小野寺敦子, 數井みゆき(1996). 父親の養育行動の柔軟性・硬さと養育參加：牧野カツコ・中野由美子・柏木惠子. 子どもの發達と父親の役割. ミネルヴァ書房.
37) 福丸由佳(1997). 子どもの關わりと父親の發達-都市部と郡部の地域差の檢討. 母子研究. 18. 60-68.
38) 柏木惠子(編著)(1993). 父親の發達心理學 川島書店.
39) 柏木惠子・若松素子(1994).「親となる」ことによる人格發達 發達心理學研究, 5(1), 72-83.
40) 柏木惠子(1998). 社會・家族・個人の發達 社會變動と家族發達－子どもの價値・親の價値－柏木惠子編 結婚・家族の心理學. ミネルヴァ書房.
41) 木田淳子(1980). 共働き家庭における父親の育兒行動 滋賀大學教育學部紀要, 30, 116-135.
42) 木田淳子・大谷直美(1992). 父親の子育て參與に關する家族關係的考察(第1報)職業的要因および家族靜態－相互作用的要因が及ぼす影響.日本家庭學會誌, 43(8), 721-733.
43) 三隅二不二編(1987). 働くことの意味 MOWの國際比較研究. 有斐閣.
44) 三隅二不二・矢守克也(1991). 日本人の勞働價値觀－「第2回働くことの意味に關する國際比較調査」から－ 組織科學, 26(4), 83-96.
45) 日本女子社會教育會(1995). 家庭教育に關する國際比較調査報告書：子どもと家庭生活についての調査(財)日本女子社會教育會.
46) 牧野カツコ(1992). 乳幼兒をもつ母親の生活と育兒不安, 家庭教育研究紀要. 3, 34-56.
47) 小野寺おつこ(1996).「男性」が「父親」になる過程. 子ども家庭福祉情報. 第12號.
48) 大野祥子・柏木惠子(1996). 父親：兒童心理學の進步. 金子書房.
49) 新谷(中原)由里子・村松幹子・牧野暢男(1994). 親の變化とその規定因に關する一研究, 家庭教育研究所紀要, 15, 129-140.
50) 數井みゆき, 中野由美子(1996). 子どもとのかかわり, 父母比較.：牧野カツコ・野由美子・柏木惠子. 子どもの發達と父親の役割.ミネルヴァ書房
51) 尾形和男(1995). 父親の育兒と幼兒の社會生活能力. 教育心理學研究. 43, 335-342.
52) 土谷みち子(1992). 父親の生活實能と父子力かわり. 家庭教育研究所. 14, 108-116.